합의내용

제목	한국 석유공사 - 쿠웨이트 KPC 석유가스 기술 협력 MOU		
합의기관(국내)	한국석유공사	합의기관(해외)	쿠웨이트 KPC
관련국가	쿠웨이트	분야	자원 · 에너지
합의일자	2015-03.02	장소	쿠웨이트
담당자	이신우 과장(한국석유공사/경영지원실)T:(052)216-2243, E: leeshinwoo@knoc.co.kr		

□ 주요내용

○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와 쿠웨이트 석유공사(Kuwait Petroleum Corporation, 이하, 'KPC')*는 2015년 3월 2일 쿠웨이트 KPC 본사에서 "석유가스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쿠웨이트 석유공사 (KPC; Kuwait Petroleum Corporation)**
- 1980년에 설립된 국영석유기업으로 10개의 자회사를 통해 쿠웨이트 국내외의 석유가스 개발, 생산, 정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총괄 수행

○ 금번 MOU는 석유가스분야에서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를 통해 양국간 석유분야 협력관계 구축를 목적으로 양국 국영석유사간에 체결되었음

○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탄성파 자료처리, 저류층 모델링, 시추 및 유정완결, 유정관리, 회수증진, 차세대 에너지자원, 사업운영 등 석유지질, 석유공학 분야 R&D 공동 개발 뿐만아니라, 공동 인력개발을 포함하며,

○ 또한 석유 개발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쿠웨이트 내 석유개발 R&D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협력

□ **향후 추진계획**

○ 국내 관련 민간 기업과 쿠웨이트 진출 방안 논의('15.3월)

○ KPC측과 구체적 협력방안 사전 논의('15.3월~4월)

○ 기술협력 논의를 위한 양사 공동 워크샵 개최('15년 상반기)

□ **시사점**

○ KPC 는 세계 6위의 원유매장량(1,015억배럴)을 보유한 쿠웨이트의 국영석유회사로서 금번 MOU를 통해 석유분야 R&D 공동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공사가 쿠웨이트의 상류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또한, 공사 뿐만아니라, 석유분야의 뛰어난 기술력/인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KPC와 다양한 석유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었으며, 인력양성 등을 통해 한국의 석유개발분야 인력들이 산유국의 석유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첨부 >

보도자료	석유공사-쿠웨이트 KPC MOU체결 보도자료.pdf

소 속	홍보실		
전화번호	052-216-2225, 2229	팩 스	052-216-5907
보도일시	2015.03.02 16시부터(한국시각)	배포일시	2015.03.02 오전(한국시각)

한국석유공사, 쿠웨이트 석유공사와 석유가스 기술 협력 MOU 체결

- 신규사업 발굴, 공동 R&D 및 인력교류 추진키로 -

□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는 현지시각 기준 3월 2일 오전 9시 30분, 쿠웨이트 석유공사에서 '쿠웨이트 석유공사(KPC, Kuwait Petroleum Corporation)'와 「석유가스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MOU는 양사간 석유개발 기술분야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업기회 모색과, 관련 분야의 인력, 지식 및 정보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MOU를 계기로 양사는 석유지질·석유공학, 석유개발 R&D 및 인력개발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양 사는 탄성파 자료처리, 저류층 모델링, 시추 및 유정 완결, 유정관리, 회수증진, 차세대 에너지자원, 사업운영 등의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추후 공동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키로 함.

□ 특히, 공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유전 탐사, 생산 증진 등 관련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쿠웨이트 내에서 자원개발서비스 사업* 및 공동 R&D**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자원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기여할 계획임.

* 지진파(탄성파) 탐사자료 취득·처리·해석 등
** 쿠웨이트 내 한계유전(Brown Field)의 생산증진 등

□ 이날 서문규 사장은 "이번 MOU가 양국 석유공사의 상류부분 공동사업 추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양국 간 석유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 한편, 이번 기술협력 MOU를 체결한 '쿠웨이트 석유공사(KPC)'는 세계 6위의 원유매장량(1,015억배럴)을 보유한 쿠웨이트의 국영석유회사로서 자회사를 통해 쿠웨이트 국내외의 석유가스 개발, 생산, 정제 및 판매 등의 석유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음.

제목	한국 석유공사- U.A.E. 아부다비 ADNOC 석유가스 기술 협력 MOU		
합의기관(국내)	한국석유공사	합의기관(해외)	아부다비 ADNOC
관련국가	U.A.E.	분야	자원・에너지
합의일자	2015-03.04	장소	U.A.E.
담당자	이신우 과장(한국석유공사/경영지원실)T:(052)216-2243, E: leeshinwoo@knoc.co.kr		

□ 주요내용

○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와 U.A.E. 아부다비 석유공사(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이하, 'ADNOC')*, 한국지질자원연구원는 2015년 3월 4일 U.A.E. 아부다비 ADNOC 본사에서 「유전개발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아부다비 **석유공사 (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 1971년에 설립된 국영석유기업으로 14개의 자회사를 통해 아부다비내 석유가스 개발, 생산, 정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총괄 수행

○ 이번 MOU는 한국과 UAE 양국 간 유전개발 분야의 연구개발(R&D)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유전생산의 최적화 및 양사 간 장기적 파트너쉽 구축이 목적임

○ MOU의 주요 내용은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UAE 3개 탐사광구(Area 1・2・3 광구)를 대상으로 석유지질・지구물리・분지해석・지화학(geochemical) 분석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저류층 특성화 작업, 유정자극 및 회수증진 분야에 있어서도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또한 연구개발(R&D) 분야의 인력교류 증진을 위해서 전문인력 교환 및 정기적인 기술세미나와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양국 관계기관 간 공동 R&D 계약 관련 세부사항 논의 및 R&D

기본사항 준비('15.3월~9월)

○ 공동 R&D 계약 체결 ('15년 하반기)

○ 공동 R&D 과제 착수('15년 하반기~)

□ **시사점**

○ 양국의 대표 국영석유회사와 국책 연구기관이 포함되는 공동 파트너십을 형성, 상호간의 R&D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공사가 탐사·개발을 추진 중인 UAE 3개 광구의 생산성 향상에도 일조

○ 또한, 중동 산유국인 UAE에서 양국의 대표적 석유개발 기관간 성공적인 공동 연구의 기반 및 향후 양사간 장기간의 파트너쉽 형성에도 도움이 되어, 공사의 중동지역 유전개발사업 확장에 일조하길 기대

<첨부 >

보도자료	석유공사-U.A.E. ADNOC MOU체결 보도자료.pdf

소 속	홍보실		
전화번호	052-216-2225, 2229	팩 스	052-216-5907
보도일시	2015.03.04 15:30분부터(한국시각)	배포일시	2015.03.04 오전(한국시각)

한국석유공사, 지자연 및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 유전개발 기술협력 3자 MOU 체결

- UAE 3개 광구 대상 석유지질·석유공학 분야 공동 R&D 및 인력교류 추진 -

□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는 3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각 기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본사에서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파트너로 참여하는「유전개발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MOU는 한국과 UAE 양국 간 유전개발 분야의 연구개발(R&D)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공동의 사업기회 발굴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석유지질 및 석유공학 분야의 공동 연구와 인적·정보 교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번 MOU를 통해서 3사는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UAE 3개 탐사광구(에어리어 1·2·3 광구)를 대상으로 석유지질·지구물리·분지해석·지화학(geochemical) 분석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저류층 특성화 작업, 유정자극 및 회수증진 분야에 있어서도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특히 3사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인력교류 증진을 위해서 방문교수를 비롯한 박사급 전문가 등의 교환과 함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아부다비 석유대학(PI, Petroleum Institute)에 한국 기술인력의 파견 및 정기적인 기술세미나와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임.

□ 금번 MOU는 양국의 대표 국영석유회사와 국책 연구기관이 포함되는 파트너십을 형성, 상호간의 R&D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공사가 탐사·개발을 추진 중인 UAE 3개 광구의 생산성 향상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공사 서문규 사장은 "이번 MOU가 세계 7위의 원유매장량(978억)을 보유한 산유국 UAE에서 양국의 대표적 석유개발 기관간 성공적인 공동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3개 광구의 성공적인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한편 공사는 GS에너지와 한국컨소시엄을 구성, 2012년 3월 UAE 3개 광구 참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현지 공동운영회사(Al Dhafra Petroleum Operations Company)를 설립하고, 두 회사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탐사작업을 진행 중임.

○ 아부다비 3개 탐사광구는 ADNOC社가 60%, 한국컨소시엄*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개 육상 광구(에어리어 1·2)는 아부다비 국토 면적의 약 10%에 해당되는 넓은 크기임.

* 한국컨소시엄: 한국석유공사 30%, GS에너지 10%